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7428

2019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샤머니즘의 의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임 경 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샤머니즘의 의미

Shamanism in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201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임 경 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샤머니즘의 의미

지도교수 이정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임 경 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임경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차희정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경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정화 인

2019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 i

Ⅰ. 서론 ····· 1

Ⅱ. 본론 ····· 5

1. 순효와 인덕: 샤먼과 몸신 ····· 5

2. “넌 들어야해”: 어머니와 딸 ····· 16

Ⅲ. 결론 ····· 23

인용 문헌 ····· 2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Shamanism in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Gyeong A Im
Advisor: Prof. Jung-Hwa Lee,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shamanism in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focusing on three central characters' relationships. *Comfort Woman* depicts two comfort women, Soonhyo and Induk, both of whom were called Akiko at a Japanese "comfort station." Induk's soul guides and helps Soonhyo who, as a shaman, remembers Induk's unmourned death. After discussing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Soonhyo and Induk, this thesis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shamanism in Soonhyo's changing relationship with her daughter, Beccah. The thesis concludes by emphasizing that shamanism in *Comfort Woman* connects Soonhyo and Induk and reconciles Soonhyo and Beccah. Through shamanism, the novel effectively reminds the reader that there is an unfinished story of the dead that the living should listen to.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노라 옥자 켈러(Nolla Okja Keller)의 『종군위안부』(*Comfort Woman*)는 위안부로서 삶을 살아온 한국계 미국인 여성을 중심으로 격변하는 식민지 시대의 한국과 다민족 사회의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겪는 종교적, 문화적 및 인종적 차이 등을 묘사한 소설이다. 켈러는 독일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를 둔 미국인 작가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많아 『종군위안부』 외에도 『여우소녀』(*Fox Girl*)와 같이 일제 강점기의 사회상을 반영한 글을 집필하기도 했다.

위안부는 일본의 제국주의 확대를 위한 전쟁에서 일본군 병사의 사기진작이라는 명분아래 만들어진 위안소의 여성으로 그들은 사람이하로 취급되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한 살아있는 역사적 비극이다. 『종군위안부』는 1993년 하와이 대학에서 열린 위안부에 관한 황금자 할머니의 강연-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위안부에 대한 사실-이 모티브가 되어 집필되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위안부에 관한 역사는 일본과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이며, 이것은 일본 정부의 미온적이며 무책임한 반응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에 대해 정순국은 "아베가 노리는 효과"(105)를 말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기존의 식민지주의에 대한 충분한 반성으로 해결되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105)이라 하면서, 과거의 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종군위안부』는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 점차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마지막에는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순서로 글이 전개된다. 전체적으로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인물인 순효(Soonhyo)[1], 베카(Beccah) 및 인덕(Induk)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각 장마다 인물의 시점이 변하며, 홀수 장은 베카의 시점으로, 짝수 장은 순효의 시점으로 반복적으로 서술된다. 베카의 이야기는 베카 어머니와 베카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되며, 순효의 이야기는 위안부로서의 삶, 출산, 그리고

1) 순효(Soonhyo)의 일본 이름은 아키코(Akiko), 미국 이름은 브래들리 여사(Mrs. Bradley)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순효의 이름은 바뀌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글 이름인 순효를 사용하여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주인공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함께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베카의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소설은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며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7장과 8장에서 그 순서가 바뀌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순효의 시점으로만 이야기가 서술된다. 9장부터 11장까지 순효의 시점에서 서술된 내용은 미국인 선교사 남편과의 결혼으로 새롭게 이룬 가족과 김 씨 가문의 딸로 태어난 순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또한 2장과 11장에는 순효의 어린 시절의 삶이 그려져 있다.

현재까지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위안부를 주제로 한 『종군위안부』는 주인공인 순효의 행동과 주변인과의 관계를 묘사함에 있어 샤머니즘이라는 장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샤머니즘은 원시시대부터 이어져온 종교로 한국의 샤머니즘은 한국의 오랜 역사와 함께 독특한 무속문화를 형성해 왔다. 특히 무속문화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조흥윤). 한국문화가 무속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윤이흠은 “한국의 전통적 영성과 미적 감각, 곧 한국의 정서를 논하는데 있어서 무속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83)고 하였다. 서희숙은 한국의 샤머니즘에 대하여 “그 어떠한 종교보다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오랜 기간을 함께 했기에 이미 우리의 기층신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8)과 하여 한국 전통 사상인 샤머니즘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종군위안부』에서 샤머니즘은 순효의 빙의 또는 신내림, 베카의 신내림 되물림,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염 등 다양한 형태로 글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다. 샤머니즘은 『종군위안부』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현재진행형인 어두운 역사적 사실을 묘사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샤머니즘은 글 속에서 주인공의 삶과 이야기의 전개상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특히 순효가 위안소에서 인덕을 만나는 시점부터 샤머니즘은 중요하게 나타나게 된다.

샤머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종군위안부』를 분석한 연구로는 이귀우의 기독교와 샤머니즘을 통한 종교적 갈등과 동화 및 베카의 세습무에 대한 딸과 어머니와의 화해에 대한 보고가 있다. 작품 속에서 순효(베카의 어머니)는 어렵게 얻은 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 베카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여 죽은 이후에도 베카를 지키기 위해 베카가 샤먼이 되는 것을 원하게 되고 샤먼의 되물림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베카를 위한 상자를 준비하고, 이러한 샤머니즘을 통해 어머니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편,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샤머니즘을 통해 소거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이명덕은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샤머니즘을 과거의 고통을 지우는 방법으로 설명한다. 이명덕에 따르면, "아키코의 트라우마가 무당이 된 브래들리 여사의 무속적 행위를 통하여 발산되는 정신적 고통의 탈출구 역할"(3)을 한다는 것이다. 박보량도 '역사의 문학적 재현'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샤머니즘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박보량은 이민 1.5세대의 작가들이 '종군위안부' 여성들의 고통을 알리는데 "동양적인 시각에서 재현"(158)하고 있으며, 특히 『종군위안부』는 "한국을 신비로운 동양의 나라로 재현"(157)하면서 무속인의 삶을 이용한 글쓰기 전략을 활용하여 '종군위안부'를 보다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은영은 초자연적 존재의 상징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다인종 문화에서 새로운 글쓰기의 가능성과 관련지어 논하였다. 김은영은 『종군위안부』가 초자연적인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과거를 현실로 불러들이고 치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자연성의 삽입을 통한 다양한 문학적 접근을 가능"(82)하게 한 작품으로 켈러의 소설을 설명하였다.

다른 한편, 구재진은 『종군위안부』가 "여성에서 여성으로 이어지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에 수록되지 못한 기억과 상처를 복원"(401)하여 현실에서 말하지 못한 사실을 소설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김혜진은 "소수 인종의 침묵과 아픔의 역사를 미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고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해 미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정의하는 과정"(136)에 초점을 맞추어 켈러의 소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선택적으로 참조해, 본 연구는 켈러의 『종군위안부』에 등장하는 세 여성인물, 즉 순효, 베카, 그리고 인덕의 관계를 중심으로 샤머니즘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순효와 인덕은 일본군 위안소에서 '아키코'(Akiko)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렸던 여성들로서 이후 샤먼과 몸신이 된다. 본론의 첫 번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에서는 순효와 인덕이 샤먼과 몸신으로 연결된다는 설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본론의 두 번째 장에서는 순효와 베카의 모녀관계에서 샤머니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두 번째 장은 순효와 베카가 서로에 대해 갖는 감정 변화를 설명하고 신내림 되물림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본론

1. 순효와 인덕: 샤먼과 몸신

순효는 개띠해의 1월 14일에 광산 김씨 가정의 넷째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암소 거래상으로 지방을 오가는 장사꾼이다. 그러나 살림은 넉넉하지 못하여 겨울철 연료로 쇠똥과 땔감을 태우며 지내게 된다. 아버지는 외지에서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얼마 후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큰 언니의 지참금을 위해 암소처럼 팔렸다"(18)는 서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순효는 첫째 언니의 결혼을 위한 지참금을 얻기 위해 일본군에게 팔리게 된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 그리고 위안소까지 순효는 원하지 않은 삶을 산 것이다.

> 나는 언제 죽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해 보려 한다. 나의 삶은 김씨 가문의 넷째 딸이자 막내로 태어나 압록강 북부의 위안소서 끝났다.[2)]

> I'm trying to remember exactly when I died. It must have been in stages, beginning with my birth as the fourth girl and last child in the Kim family, and ending in recreation camps north of the Yalu. (17)

순효의 삶에서 위안소 생활 전까지의 샤머니즘은 정월대보름 전날(1월 14일) 태어난 것과 여자라는 성별에서 오는 문화적 차별에서 대부분 표현된다. 순효는 "한국의 여자들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기 하루 전에는 남의 집에 방문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118)고 설명하는데, 그녀는 정월대보름 전날 태어나면서 자신의 집에 들어간 환영받지 못하는 여자 손님이 되어 버린 것이다.

순효가 살아온 문화적 환경은 가부장적이며 폐쇄적인 유교적 문화가 깊게 자리

2) 본 논문에 사용된 *Comfort Woman*의 우리말 번역은 박은미의 번역판 『종군위안부』를 따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잡은 시기로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환경이라고 해석된다. 이수미는 “종군위안부들이 남성 중심적 유교 문화와 민족주의의 희생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여성의 몸에 관한 정조 관념과 더불어 인종차별주의적 제국주의, 식민주의, 남성 중심적 민족주의 역사 인식 등”(241)이 함께 나타난다고 했다. 그리고 조디 킴(Jodi Kim)은 “가부장제 전통에서 어린 소녀들이나 여성들의 몸이 종종 ‘교환가치를 지닌 소모품’으로 사용되었으며, 가정 내 경제적 재원의 부족과 일본의 식민통치, 세계 대전에 의해 그 양상이 더욱 악화되어 있다”(62)고 하였다. 즉, 순효는 어린 나이에 가족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것이다.

아울러 순효의 환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 구은숙은 순효가 “여성의 순결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문화에서 자랐기에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뒤 죽음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포기한 것”(477)으로 해석하였다. 임소희는 순효의 어린 시절에 “당시 한국사회가 갖고 있던 ‘순결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12)고 하였다. 나아가, 김정면은 “이조때 여성들은 특히 유교 도덕 속에서 키워진 탓도 있어, 정조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었다. 그래서 한국 여성이라고 하면 정절, 또는 순결의 심볼처럼 생각되어 왔다”(11)고 했다.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환경에서 위안소 이전의 순효는 문화적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순효의 위안소 이전의 삶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갔다면, 순효가 위안부인 ‘아키코’가 되어 인덕을 만나고 이후 위안소를 탈출하면서 조금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삶을 찾아가게 되며 이때부터 샤머니즘은 글에서 중요한 시점마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위안부가 된 순효는 다른 위안부처럼 몸이 피폐해져 간다. 그리고 한 번의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그녀는 일본인 의사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여성상을 접하게 되는데, 그는 “매혹적이야, 아마 우리 두 나라의 여자들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상반된 것은 지리상의 차이 때문일 거야”(22)라면서 제국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의사는 내 다리와 팔을 묶고 나에게 재갈을 물렸다. 그리고 나서 막대기로 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전히 아기의 형체를 갖추지 않은 아이를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계속 떠들어댔다. 그는 인종들간의 진화론적 차이와 생물학적 기벽으로 인해 한 인종의 여자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다른 인종의 여자들은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말을 했다. “정말 거의 동물처럼 천하지.”라는 말도 했다.

> As the doctor bound my legs and arms, gagged me, then reached for the stick he would, he talked. He spoke of evolutionary differences between the races, biological quirks that made the women of one race so pure and the women of another so promiscuous. Base, really, almost like animals, he said. (22)

이러한 사건을 겪은 후 순효는 현실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발휘해 위안소를 탈출한 후 신내림을 통해 인덕의 혼과 접신하는 샤먼이 된다. 첫 접신은 순효가 위안소를 탈출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순효는 인덕을 위안소에서 처음 알게 된다. 인덕은 순효가 아키코로 불리기 전에 아키코로 불렸다. “어느날 밤 인덕은 멈추지 않고 큰소리로 이야기를 해댔다”(20)고 묘사되는데, 갑작스럽지만 사실은 계획된 인덕의 행동은 일본군에게 광기로 보이게 된다. 일본군이 광기로 이해한 인덕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그녀의 계획된 탈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군은 인덕을 처참하게 죽이고 다른 위안부 여성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시체를 강에 방치한다.

진순희는 “성 노예 경험과 타국에서 살아가야 했던 여성과 본국에서 이중적인 잣대로 침묵을 강요당하며 살아온 여성들, 그리고 남성 중심적 억압과 폭력적 역사는 『종군위안부』에서 주로 나타나는 침묵에 대한 이야기”(352)라고 했다. 인덕은 이러한 침묵을 깨고 자유를 찾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행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인덕의 행동은 순효가 위안소를 탈출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덕의 계획적인 탈출 시도는 산자의 삶이 아닌 죽은 자의 삶, 즉 죽음을 통한 자유가 되었으며, 이러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순효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귀우에 따르면 “인덕은 위안소에서 자유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용감한 선배”(193)로 그려진다. 또한 김은영은 인덕의 죽음에 대하여 “혼령의 발화”를 상징한다고 했으며, “위안소에서 일본군에게 몸을 내어주기를 거부하며 인덕이 할 수 있던 저항은 자신이 하나의 인간이며 여자임을 소리쳐 알리는 행위였다”(28)고 하였다. 인덕의 이러한 의지는 순효의 의지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나는 억지로 인덕의 몸을 세부적으로 찬찬히 보려 했다. 인덕이 내게 다시 돌아왔기에 그녀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손가락으로 부어오른 살을 찔러 보았다. 나는 거기에 키스를 했으며, 손과 눈과 몸을 그녀에게 맡겼다. 그러자 인덕은 나를 구원해 주었다.

> I forced myself to look, to linger over the details of her body. I found her beautiful, for she had come back to me. I grabbed her hand, and my fingers slipped into bloated flesh. I kissed it and offered her my own hands, my eyes, my skin. She offered me salvation. (96)

순효는 죽은 인덕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고 그녀에게 의지하게 된다. 순효는 인덕의 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여행을 하면서 인덕의 몸신으로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이귀우에 의하면, 이러한 결정은 인덕을 자신의 몸신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으로 순효가 “독자적인 강신 체험”(198)을 했음을 의미한다.

순효는 이후 딸인 베카의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았음에도 의사들과 격리되길 원한다. 순효는 “나는 딸을 의사들과 그들의 더러운 손과 눈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썼다”(35)고 하는데, 이는 그녀가 과거 위안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사를 성적 수치심을 주고 한국여성을 비하하며 여성의 몸을 훼손하는 존재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을 비하하는 폭력적인 존재인 의사로부터 딸을 지키고자 하는 순효의 마음은 인덕에게도 전해진다. 순효가 딸을 출산한 날을 서술하는 다음의 장면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여자애를 건졌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그리고 남자들로 가득찬 방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인덕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의사의 몸속으로 들어간 그녀는 마스크와 가운과 빛의 후광에 가려진 채 내 곁에 서 있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온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그것이 인덕임을 알아보았다. 맨 처음에도 그랬었다.

We caught her, someone said-and when I heard that woman's voice in the roomful of men, I knew Induk was there. Slipping into the body of a doctor, she stood beside me, shadowed by mask, gown and a halo of light. And though I could not see her face, though it had been some time since she last came to me, I knew it was her, just as I've always known. Even the first time. (35)

순효는 샤먼으로서 인덕을 통해 의사의 존재를 지우려 하는 것이다. 샤머니즘에서 몸신은 다양한 형태로 샤먼과 연결되는데 딸이 태어나는 이 순간만큼은 인덕이 의사와 빙의되는 특별한 상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순효는 베카를 자정시키고 자신의 과거를 지우는 의식을 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귀우가 설명하듯이, 인덕은 순효의 "삼신할머니 역할로 등장하며 베카는 순효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된다"(205).

위안소를 탈출한 순효는 압록강 상류의 개울가에 지쳐 쓰러지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인덕의 영혼과 마주치게 된다. 인덕의 영혼은 순효를 엄마처럼 다정하게 포용하며 그녀가 의식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인덕은 압록강 상류의 한 이름없는 개울 옆에 쭉 뻗고 누워 있는 나를 발견했다. 거기서 나는 보잘 것 없는 내 육신을 버렸었다. 나는 발견한 첫날 인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내 육신 속으로 들어왔다. [...] 인덕은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발을 질질 끌며 내게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그때 인덕의 가슴이 방금 캐낸 인삼으로 변했다.

That first time, she found me sprawled next to an unnamed stream above the Yalu, the place where I had discarded my empty body, and invited herself in. [...] She shuffled closer, hands cupping her breasts, which turned into an offering of freshly unearthed ginseng. (36)

인덕은 순효에게 살기 위한 강한 몸부림을 보여준 존재였다.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인덕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순효가 인덕의 영혼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샤머니즘 사상에서 샤먼은 매우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 영혼과의 직·간접적인 교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순효는 인덕을 받아들이고 인덕은 그녀가 죽지 않도록 교감을 시도하여 순효가 의식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순효의 첫 접신으로 이로 인해 인생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되므로 샤머니즘을 통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첫 접신에서 순효는 인덕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만신아지매(Manshin Ahjima)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만신아지매를 찾아가는 순효는 인덕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흐리게 보이다가도 엄마와 노파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때 순효는 이러한 인덕의 모습에 놀라지 않고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여정 이후 순효는 결국 무덤에서 만신아지매를 찾게 된다.

나는 자면서 걷고, 또 걸으면서, 그 여행 내내 앞에서 손짓하며 부르는 인덕에게 내 눈을 고정시켰다. 때때로 그녀의 모습이 흐려져 두 배로, 네 배로 되었다. 그녀는 인덕이었다가 내 엄마로 변하기도 했으며, 옛날 한복을 입은 외할머니였다가 노파로 변하기도 했다. 나는 조상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생각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들었다.

I walked and slept, walked and slept, and throughout the journey kept my eyes fixed on Induk beckoning before me. At times, her form would blur until in doubled, then quadrupled, and she would become Induk and my mother, and in turn my mother's mother and an old woman dressed in the formal top'o of the olden days, I realized I was walking with my ancestors. (53)

무당으로 불리는 샤먼은 첫 접신 때 몸신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감정과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 몸신은 이것을 통해 접신한 인간과의 일치감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효는 인덕의 영혼과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을 아키코로 불렸던 인덕을 기억한다. 아울러 만신아지매와의 만남에서 순효는 인덕과의 접신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동시에 만신아지매를 통해 평굿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만신아지매는 십자가를 목에 걸어주며 기독교적인 의식을 행하게 된다.

샤먼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순효는 만신아지매로 인해 선교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선교원에서 순효는 먼저 그곳에 머물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청소, 설거지, 요리 및 풀칠 등을 하며 한국에서와는 많이 다른 기독교 문화를 접하게 된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가는 모습에 적응이 쉽지가 않았다.

선교원에서 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버릇이 없는 것에 당황했다. 비슷한 삶을 살았던 남자와 여자들은 함께 식사를 했으며 일했다. 그들은 말할 때 서로의 얼굴을 똑바고 쳐다보았으며 입을 벌리고 웃었다. 예배를 볼 때에도 그들은 커튼이나 시트로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허벅지와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t the mission house, I was embarrassed by the disrespect be-tween the men and the women. Lives overlapping, men and women ate and worked together. They looked into each other's faces as they spoke, laughing with mouths open. Even while worshiping, they sat side by side, unseparated by a curtain or sheet, on the same bench, thighs and shoulders almost touching. (68)

미국인들과의 선교원 생활에서 순효는 남자와 여자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 큰 문화적 차이를 느낀다. 또한 기독교의 예배 과정이 위안부의 삶을 회상하여 미국의 샤머니즘에 순효는 거부감(설교단을 치는 소리, 예배 노래 소리)을 갖게 된다.

설교하는 동안 그가 강조하려고 설교단을 내리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새로 도착한 군대 앞에서 여자들이 줄지어서 있을 때 여자들이 벗은 궁둥이를 찰싹 맞는 소리를 들었다.

During his speech, each time I saw him slap the pulpit for emphasis, I heard the sounds of women's naked buttocks being slapped as they were paraded in front of a new arrival of troops. (70)

이경순은「한국계 미국여성소설과 기억의 문학 정치학:『딕테』와『종군위안부』」에서 "한국계가 경험하는 식민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다층적 식민 지배 권력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24)에 대하여 논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도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였으며, 특히 종교적인 집단 활동은 민속문화에 적응된 한국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순효의 경우 위안부 생활로 인해 폐쇄적인 삶의 자세에서 종교적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괴리감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단된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 갈 때쯤, 순효는 인덕의 접신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그녀는 항상 인덕이 자신에게 돌아오길 기도하였으며, 결국 인덕은 어느 날 순효의 몸에 접신하게 된다. 그 날은 목사가 신에게 몸을 맡기는 방법에 대한 설교를 들은 날이었다.

> 무엇인가가 내 가슴을 압박하자 두려움이 점차 커졌다. 무언지 모르는 그 무게에 내가 익사하게 될 것만 같았다. 마침내 그것이 점차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자 나는 내 몸에 걸터앉아 나를 땅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인덕이라는 것을 알았다.
>
> I became afraid, knowing that I would feel naked and vulnerable without my body.
> The fear grew until it pressed against my chest, until I felt I would drown under the weight of it, until it began to take shape and I saw that it was Induk straddling me, holding me down to the earth. (95)

순효는 미국의 문화와 종교(기독교)를 이해하는 도중에도 샤먼으로서의 자신을 잊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독교의 방식으로 인덕을 지속적으로 불렀다. 결국 인덕은 순효의 몸에 접신하게 되지만 인덕은 순효에게 “왜 너는 나를 썩어가도록 바깥에 그냥 내버려 두었지?”(95)라고 하며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방치된 자신을 찾지 않은 순효를 미워하듯 자신의 염이 수행되지 않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여기서 인덕은 오히려 자신을 찾아준 인덕이 만신아지매를 통한 의식을 받지 못했음도 불구하고 순효를 자신의 몸신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 그 의식을 순효를 통해 인덕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덕은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 있는 자신의 풀지 못한 감정을 순효를 통해 이해를 받으려 한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순효는 “그러나 인덕은 나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원해 주었다"(96)라고 생각하며 완벽하게 인덕과 하나가 된다. 순효는 인덕의 신내림을 받은 것이다.

해방이후 고국을 떠난 순효는 미국 본토를 돌아다니며 선교사 남편의 선교활동을 도우며 살아간다. 이후 선교사 남편이 죽고 나서는 순효는 하와이에 정착하게 된다. 하와이에서 순효는 다른 혼령들과의 잦은 접신으로 혼란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딸은 그녀를 옆에서 보살핀다. 현지인들은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외지인과 샤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레노아줌마(Auntie Reno)가 순효의 접신을 이용한 개인적 상담을 통해 수입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서 주위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접신한 순효의 행동은 이웃들에게 불안감을 제공하게 된다. 옆집에서 들리는 이해 못할 큰 목소리들과 울부짖음, 그리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는 이웃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되어, 결국 모녀는 조금 더 조용한 집을 얻어 이사하게 된다.

이사한 곳은 정원이 있고 앞에는 강물이 흐르는 한적한 곳이다. 하와이에서 순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풀, 꽃, 바람 등의 자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순효와 그녀의 딸은 항상 조용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고대하였다. 좋은 집은 아니지만 정원이 있고 강물이 보이는 한적한 곳에 집을 얻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순효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하나씩 찾아다닌다. 베카의 시점으로 서술된 아래의 회상이 말해주는 것처럼, 순효는 특히 강물의 노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 엄마는 넓은 뜰과 풀들이 아무렇게나 자란 자신의 정원을 좋아했다. 베델리아와 도토리 풀이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위협할 때만 잡초를 뽑아주거나 그것들의 가지를 쳐 주었다. [...] 엄마는 조용한 날이면 마노아 강물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이 대양으로 달려나가는 꿈을 꾼다고 말했다.

> My mother loved the expanse of her yard, her wild garden; ex-cept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for weeding and pruning the wedelia and nut grass whenever they threatened to choke the other plants, [...] She said that on quite days she could hear the Manoa River and would dream of riding it to the ocean. (124)

『종군위안부』에서 강과 개울가 등 물은 자주 등장한다. 인덕은 압록강 근처의 위안소에서 강으로 내버려졌고, 위안소를 도망친 순효는 개울가에 쓰러지고 인덕은 그녀를 깨워 삶이 연장되도록 도왔다. 성지연은 이 소설에서 물이 "외상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32)을 한다고 하였다. 순효가 미국 선교사와 결혼한 곳도 강가였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강은 중요한 환경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하와이의 마지막 집 앞에도 강이 흐른다. 이것은 스스로 강을 찾아온 순효의 의지이다. 그것은 바로 큰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효의 마음이며, 이승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순효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강물을 보며 위안을 받음과 동시에 강물의 소리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그 죽음은 혼자지만 쓸쓸하지 않은 죽음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도 샤먼의 길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권택영은 "강물이 상징하는 것은 흐름이요 하나 됨이다. 만물이 하나 되어 흐른다는 것은 동양의 도사상의 근원이다"(225)라고 했다.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 사회와 일본 식민지 하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을 켈러는 순효와 인덕의 관계를 매개하는 샤머니즘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위안소에서 인덕을 알게 된 순효는 인덕이 죽은 이후 그녀의 일본 이름인 '아키코'가 되었다. 죽은 인덕 역시 순효와의 접신을 통해 그녀와 한 몸이 된다. 이후 인덕은 순효의 몸신으로서 그녀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이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나 중요한 삶의 고비에서 접신을 통해 순효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종군위안부』는 샤머니즘을 통해 인덕과 순효라는 두 위안부 여성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연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넌 들어야해”: 어머니와 딸

『종군위안부』는 일인칭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는데 베카의 시점에서 현재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순효와 베카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학생인 베카는 매일 등교 때마다 순효가 레노 아줌마의 와이키키 바비큐점으로 갈 수 있게 버스를 태워주는데 이러한 일상 속에서 샤머니즘이 등장하게 된다. 글의 첫 부분에서부터 켈러는 베카의 일상을 보여주며 베카의 현재를 통해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면서 글은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레노 아줌마는 하와이에서 순효와 베카가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순효의 능력(신내림을 받은 무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녀의 도움으로 모녀는 하와이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게 된다.

> 내겐 꼬마 때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다. 그것은 지금도 버릴 수가 없다. 식사전 나는 어느 쪽이 존재하든 상관없이 신령들이나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밥-아니면 내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음식-을 조금 남겨둔다. 친구들과 외식을 하러 나갈 때에도 음식을 접시 가장자리로 밀어 조금 잘라놓고 이제까지 줄 곧 해왔던 기도를 생각했다.

> I have habit I picked up from those small-kid days, one that I can’t seem to shake even now. Before eating my meals, I set aside a small mound of rice-or whatever I’m eating-as a sacrifice for the spirits or for God, in case either exists. Even eating out with friends, I push the food around on my plate, severing a small portion, and think the prayer I have prayed ever since I can remember. (3)

식사 때마다 베카는 음식을 접시에 두는 행위(제물을 두는 것)를 반복하는데, 이것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베카가 일상 속에서 샤머니즘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베카가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분 누구든지 제발 엄마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3)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베카가 서로 다른 종교를 혼합한 일종의 샤머니즘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순효는 무녀이며 자신의 몸신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서 때론 실성한 사람이 되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정신 상태로 그려진다. 베카는 이러한 순효를 버리지 않고 옆에서 지키고 있다. 정순국에 따르면 베카의 이야기는 “어머니와 소통하고 상처 받은 이들의 육체와 감정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모습”(117)을 보여준다. 베카는 순효의 상처가 치료되길 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상처도 순효를 통해 치료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고 탄생지로 되돌아가려고 길을 찾아 방황하는 용선 귀신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거리를 배회한 후 그녀의 실성을 설명하는 사람들을 내게 데리고 올 수도 있었다.

> both because she might never come back and because-like a wan-dering yongson ghost finding its way back to its birthplace-she might. After roaming the streets, she could have led everyone back to me, the one who would have to explain my mother’s insanity. (5)

이 부분에서 이미 베카가 순효를 인정하고 그의 샤머니즘을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단지 모녀간의 정(情)에서 오는 동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성의 원인이 순효와 혼령과의 교감이라는 것을 베카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베카가 순효의 삶, 샤먼인 엄마의 삶을 인정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순효는 베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자신의 삶을 딸을 위한 삶으로 바꿔가게 된다. 자신이 버려야 했던 소중한 것들을 딸인 베카는 갖고 살아가길 원했던 순효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애가 집없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113), 그리고 정신적 편안함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샤머니즘을 행한다.

> 출산 후 나는 그 흙을 젖꼭지에 문지르고 그것을 딸의 입술에 갖다 댔다. 그 애가 처음 젖을 빨 때 흙과 소금과 젖을 맛보면서 내가 그 애의 고향이며 언제나 고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 After her birth, I rubbed that same earth across my nipples and touched it to my daughter’s lips, so that, with ger first suck, with her first taste of the dirt and the salt and the milk that is me, she would know that I am, and will always be, her home. (113)

이 장면에서 순효는 흙과 소금을 자신과 고향의 분신으로 여기면서 고향으로서의 자신의 몸에 대한 기억을 베카에게 각인시키려고 한다.

베카는 순효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특히 베카는 “엄마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고 말해놓고 왜 나를 떠나려 하는지”(48) 순효가 운하에 빠지려하는 순간에 매우 애절하게 물어본다. 이러한 순간에 베카는 순효와 자신 사이에 높은 벽이 있는 것을 느낀다. 구은숙에 따르면, 이 소설은 “아키코(순효)와 베카의 모녀간의 상실감을 보여주며 이후 결과적으로 두 인물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을 보다 극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보이게 한다”(485). 이러한 점은 글이 묘사되면서 점차 드러나게 되나 아직까지 베카는 순효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나는 튜츠가 장난기가 발동하여 무리지어 있던 아이들 속에서 나를 지목하기 전에 살짝 빠져 나왔다. 바로 그 순간 엄마를 모셔가라는 소리가 들렸으나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도망쳤다. 엄마에게서 더 멀리 도망치면 칠수록 나는 더 작아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나는 엄마가 사악한 것들의 살을 내쫓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해 태운 싸구려 뜸쑥 덩어리보다 더 작아지고 초라해졌다.

Before Toots Tutivena could finger me in the crowd I had joined, merely curious, when they started chanting, “shame-u-shame-u, sad-u sa-u,” I slipped away. At the moment I was called farther I ran from my mother, the smaller I seemed to shrink, until I was smaller and flimsier than the cheap moxa balls my mother burned to ward off the sal of malevolent beings. (89)

베카는 순효를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은정은 베카의 이러한 행동이 “엄마에 대한 이러한 상실감과 동양인 혼혈아라는 그녀의 위치로 인해 베카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49)고 하여, 아직까지는 두 사람은 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벽은 순효의 샤머니즘적 행동을 의미하며 베카는 순효의 샤먼적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귀우는 이러한 베카의 행동을 현실적 세계에 적응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서 샤먼으로서의 삶보다는 현재의 삶, 즉 “문화적 주류의 편”(199)이 더욱 소중했을 청소년 시기에 베카의 선택이라고 해석하였다.

순효는 베카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베카를 위한 상자를 준비하게 된다. 상자에는 첫돌에 입은 옷, 배냇 머리털, 탯줄, 그리고 카세트 테잎들이 들어 있다. 어린 시절 베카는 테잎을 듣는 순효를 보며 엄마로서의 순효를 기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베카는 테잎을 듣는 순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엄마를 위해 울어드릴게요’”(172)라고 말한다. 이귀우는 “베카가 준비되면 스스로 상자를 발견하여 장례를 제대로 치룰 수 있을 것”(201)이라고 하면서 “테잎은 한국의 전통적 장례 절차를 설명해 주는 도구”(201)라고 설명한다. 순효는 베카가 자신의 장례를 치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인덕은 자신이 일본인에 의해 죽음을 당했을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은 분노를 순효에게 표현했다. 장례가 죽은 이의 삶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의식이라면, 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덕의 시신이 방치되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적절히 애도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순효의 상자는 베카에게 자신과 인덕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해 달라는 순효의 당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딸을 위해 보관한 함에 나는 현재의 내 삶의 보물들을 보관하고 있다. 거기에는 첫돌에 사용할 딸의 옷, 불그스름하고 갈색인 배냇 머리털, 말라붙은 탯줄 뿌리가 들어 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편린들과 비밀들을 보관할 얇은 검정 카세트 테잎도 들어 있다. 그것은 나의 진짜 이름인 순효와 그 애의 이름인 백합으로 시작한다. 나는 딸을 떠날 때를 대비해 말한다. 내가 죽으면 그 애는 내 이름을 듣게 될 것이고 자신이 울 때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In the box I hold for my daughter, I keep the treasures of my present life: my daughter's one-hundred-day dress, which we will also use for her first birthday; a lock of her reddish-brown hair; the dried stump of her umbilical cord. And a thin black cassette tape that will, eventually, preserve a few of the pieces, the secrets, of our lives. I start with our names, my true name and hers: Soon Hyo and Bek-hap. I speak for the time when I leave my daughter, so that when I die, she will hear my name and know that when she cries she will never be alone. (183)

테잎에 녹음된 내용은 순효가 샤먼의 행동을 할 때의 노래로 순효가 바라는 미래의 베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넌 들어야 해, 알아야해. 이것은 언젠가의 너일 거야"(172)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순효는 베카가 샤먼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샤머니즘의 한 정신인 동화와 세습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베카도 순효를 따라 샤먼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임소희가 설명하듯이, “이 테잎을 통해 베카는 자기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이는 정체성의 확인과 연계된다. 또한 베카가 문서들과 테잎을 통해 엄마의 옛날 이름과 삶에 대해 알게 되고, 칠성과 관계있다고만 생각했던 이름들이 이모들의 이름이며 엄마가 침묵으로 그러한 인연을 끊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방시키는 염을 하여 순효의 말과 정신과 몸을 일치시키는 의식”(22)이 되며, 이는 베카의 정체성을 회복”(36)시키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의 베카는 순효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나 순효가 남긴 상자를 보고 그녀의 삶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상자를 남긴 순효의 목적은 베카가 자신을 이해해 주고 기억해 주는 것이다. 또한 순효가 자신의 엄마에게서 받지 못한 것들을 자신의 딸인 베카에게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이다. 이러한 순효의 마음이 베카로 하여금 이 상자를 통해 완벽히 순효의 삶과 그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하게 하는 큰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아울러 그 동안 베카의 사상과 문화적 성격이 이를 통해 모두 변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베카와 순효는 서로를 이해하고는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이로 서술되고 있다. 이것은 순효와 베카와의 관계가 순효의 샤먼의 행동으로 인해 내외적 표현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샤머니즘의 세습 사상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이귀우에 따르면 순효가 준비한 베카의 상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베카 자신에게 이야기 하지 않은 이유로 “베카가 샤먼으로 입문하는 하나의 통과의례에 해당하기 때문”(195)이라고 하여 이것은 베카가 샤먼으로 입문하는 하나의 통과의례로서 상자를 찾고 그 상자에 정보를 통해 샤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순효는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은 순효를 그리워하던 베카는 그녀를 다시 한 번 더 보기 위해 순효와 함께 했던 신들을 불러 모으게 된다. 베카는 순효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려 순효가 모셨던 신들에게 엄마를 불러오게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장면이 보여주는 것처럼, 베카는 그렇게 순효를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고, 또한 엄마를 따라서 베카도 무녀가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는 엄마를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집의 신령들을 돌보며 엄마가 했던 일을 했다. 나는 내 옆에서 엄마를 느끼고 그녀의 혼을 감지할 수 있기를 원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녀가 살아 있을 때는 거의 그러질 않았지만, 죽었을 때는 내가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내게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I performed the actions of my mother, caring for the spirits of the house, in order to feel my mother once again. I wanted to be able to feel her next to me, to sense her spirit-for if there really are such things, I knew she would come to me, feeling my need for her, in death as the rarely did in life. (169)

베카와 같은 이민 2세대는 삶의 환경이 전혀 달랐던 부모세대와의 마찰을 겪어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된다. 베카의 엄마인 순효는 격동기의 삶을 살아온 특수한 인생 경험을 갖고 있어 딸이 그녀의 삶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시간과 특별한 정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 간의 정이 무엇인지 느끼기도 전에 세상 혼자 남게 되었다. 순효와 베카는 서로 소통하는 법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순효는 샤먼으로의 삶을 베카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욱 쉽고 편했을 것이고, 그런 순효를 베카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녀가 보고 겪었던 일들을 혼자 되새기며 순효를 기억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순효의 행동을 기억하고 따라하는 것은 세습무를 암시하는 것이며 베카도 엄마인 순효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샤먼으로 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결론

『종군위안부』는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겪으면서 위안부라는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간 순효를 중심으로 가족과 주변인들과의 유대관계 형성, 화해와 이해, 그리고 말하지 못한 고통과 애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순효와 인덕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샤머니즘은 두 위안부 여성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순효는 인덕과의 접신을 통해 위안부였던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를 위로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며 죽은 자들이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주면서 그들의 혼을 위로한다.

인덕은 죽음을 통해 위안소를 탈출했지만 그녀의 시신은 장례절차 없이 버려진다. 샤먼인 순효를 통해 인덕의 혼은 비로소 위로받게 된다. 이야기 속에서 인덕의 정보는 많지 않아 그녀의 행동이 나타내는 의미는 해석이 어렵지만 자신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인덕과 순효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양인 여성으로서의 위안부 생활을 경험했다는 부분은 순효가 인덕을 몸신으로 받아들여 인덕의 혼을 위로하고, 인덕의 혼을 통해 순효가 위안부 이후의 삶에서 의지를 갖게 해주는데 중요한 장치로 사용된다.

이민자 2세인 베카에게 샤먼인 순효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순효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상자속의 물건들을 통해 베카는 마음을 열고 순효를 이해하려 한다. 또한 순효와 베카의 사이에 레노아줌마가 중재자적 역할을 하면서, 베카는 순효와 가까워지고,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게 된다. 주변 여건의 개선과 심적 변화로 인해 베카는 샤먼인 순효를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을 받아들여 결국 샤먼의 되물림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샤머니즘이라는 종교적 사상의 후대로의 전파라는 의미도 있으나 순효의 위안부 생활과 같은 침묵당한 역사를 듣고 전달한 의무가 이후 세대에게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넌 들어야 해”라는 순효의 유언은 베카뿐 아니라 소설의 독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안부들은 제국주의에 심취되어 있던 일본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살아 있는 역사이다. 켈러는 황금자 할머니의 증언을 모티브로 하여 그 누구도 말하기 어려웠던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켈러의 소설을 통해 위안부에 대한 과거의 진실을 현재의 세대들이 인지하고 이해하여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용 문헌

구은숙. 「여성의 몸, 국가 권력과 식민주의/민족주의: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 『영어영문학』 47.2 (2001): 471-86.

구재진. 「『종군위안부』의 역사 전유와 향수」. 『한국현대문학연구』 21 (2007): 381-406.

권택영. 「기억의 방식과 켈러의 『종군위안부』」. 『호손과 미국소설연구』 12.1 (2008): 215-36.

김은영. 「『빌러비드』와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초자연적 존재의 의미」.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5.

김정면. 『정신대』. 서울: 일월서각 1992. 11-12.

김혜진. 「재기억의 정치학 - 미국 소수 인종 소설 속에 나타난 트라우마적 경험과 정체성 회복 -」. 박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2015.

박보량. 「'종군위안부' 역사의 문학적 재현: 테레즈 박의 『천황의 성물』,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와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2003.

서희숙. 「현대소설에 나타난 샤머니즘 양상 연구, 김동리의 『巫女圖』, 『乙火』와 한승원의 『불의 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4.

성지연. 「노라 옥자 켈러와 수키 김의 소설 연구—『종군위안부』와 『통역사』에 나타난 정체성 문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09.

이경순. 「한국계 미국여성소설과 기억의 문학 정치학: 『딕테』와 『종군위안부』」. 『영어영문학21』 19.2 (2006): 69-97.

이귀우.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샤머니즘과 두 일인칭 서사의 구조」. 『외국문학연구』 31 (2008): 191-210.

이명덕.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역사적 기억의 '소거'로서의 글쓰기」. 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수미.「『종군위안부』에 드러난 억압적 식민담론」.『미국학논집』 35.2 (2003): 241-29.

이은정. 「소수민족 여상작가작품의 모녀관계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5.

임소희. 「Nora Okja Keller의 *Comfort Woman*에 나타난 상징을 통한 정체성 상실과 회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8.

정순국.「『빌러비드』와 『종군 위안부』에 재현된 '죽은 자의 목소리'」. 『미국학논집』 50.1 (2003): 101-29.

조흥윤. 『巫: 한국 무의 역사와 현상』. 서울: 민족사 1997.

진순희. 「강요된 침묵에 저항하는 양태-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와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중심으로-」.『국제한인문학연구』 3 (2005): 329-58.

최혜실. 「식민자/피식민자, 남성/여성, 부자/빈자 -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를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7 (2002): 7-25.

켈러, 노라 옥자. 『종군위안부』. 박은미 옮김. 서울: 밀알 1997.

Keller, Nora Okja. *Comfort Woman*. New York: Viking 1997.

Kim, Jodi. "Haunting History: Violence, Trauma, and the Politics of Memory in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Hitting Critical Mass: A Journal of Asian American Cultural Criticism* 6.1 (1999): 61-78.

Collection @ chosun